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SESSION

2

2013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한국인의 유산기부

연구자 |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사기관 | **HankookResearch**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학력

- 연세대학교 신학 전공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최근 주요 경력

- 2013.~현재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이사
- 2011.~현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 2003.~현재 중부재단 이사
- 2009.~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 연구실적

- 2014.5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지역상생 발전 전략- 한국광해관리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 2013.11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종교성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학 2013.11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시민의 사회참여행동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13.8 기업과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 파트너십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13.5 시민의 기부행동에 대한 현장실험 연구 - 구세군 자선냄비에 대한 기부, 연세대학교
- 2012.9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 의향의 인과관계 추정: 성향점수 매칭(PSM) 분석, 한국사회정책
- 2013.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인의 유산기부: 유산기부 의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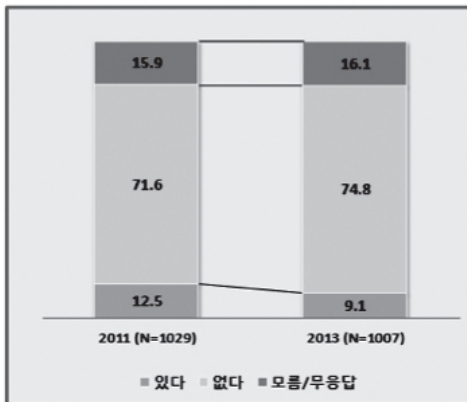
2014년 10월 23일

강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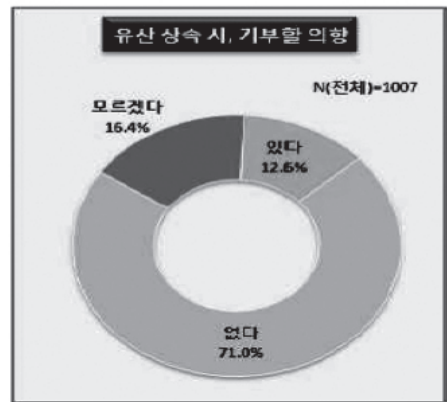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1. 유산 기부 의향 여부

- 기빙인덱스 2013에서는 유산기부 의향에 대해 본인의 자산에 대한 유산기부 의향과 가족으로부터의 유산상속 시의 유산기부 의향을 구분하여 질문함.
- 본인의 자산에 대한 유산을 기부할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74.8%로 높은 반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1%(1007명 중 92명)로 2011년에 비해 3.4%p 감소함.
- 상속 유산에 대한 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6%(1007명 중 127명)으로 본인의 자산에 대한 유산기부 의향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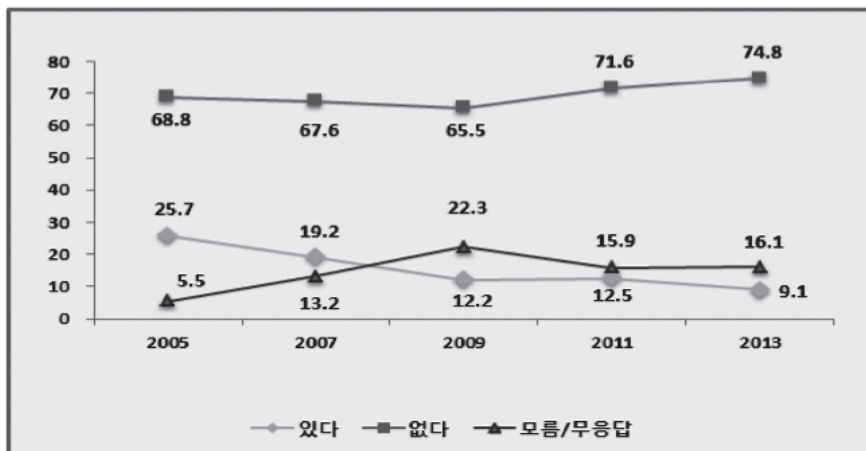
[본인 자산에 대한 유산기부 의향]



[유산상속시의 유산기부 의향]

2. 유산 기부 의향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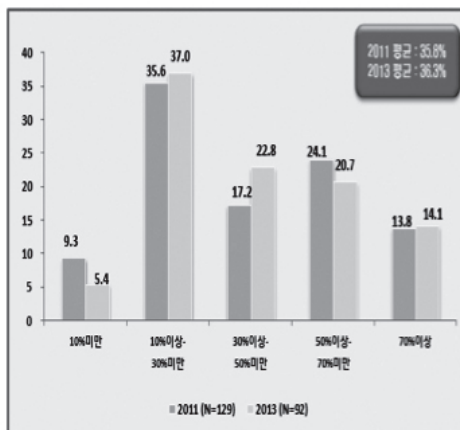
- 유산 기부 의향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도의 미미한 증가(0.3%p)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부터의 변화추이 속에서 2013년 조사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이는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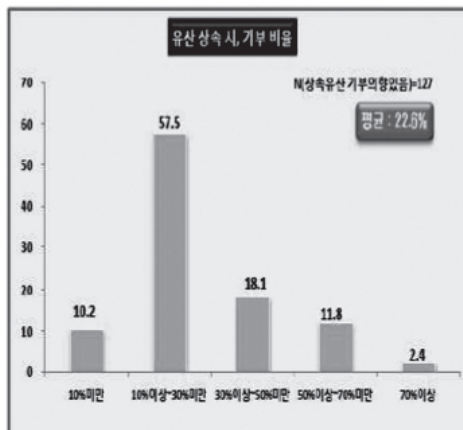
[2005~2013년 유산기부 의향 변화 추이]

3. 유산기부 희망 비율

- 유산기부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체 유산 중 어느 정도를 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유산기부 희망비율의 평균은 36.3%임. 2011년 35.8%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음.
- 유산기부에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10%이상 30%미만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경향이 있음.
- 상속 유산에 대한 희망기부비율의 평균은 22.6%로 본인 유산기부 희망비율에 비해 낮음.



[본인 자산에 대한 유산기부 의향]



[유산상속시의 기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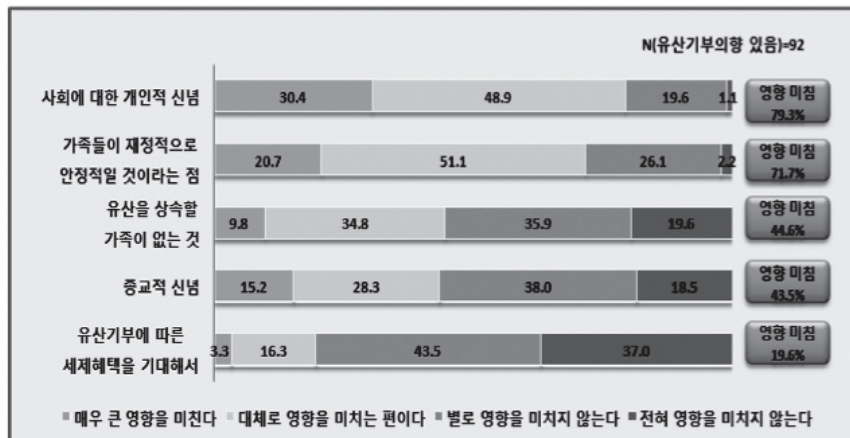
4. 유산 기부 의향이 높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9.7%), 40-49세(13.3%) 가구소득500만원 이상(13.2%), 중소도시 동부(14.0%), 미혼(11.7%), 종교 있음(12.7%), 행복한 편(10.0%), 노후 준비 됨(10.1%), 진보(16.6%) 등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음.
- ▶ 반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76.1%), 60세 이상(80.7%), 가구소득 100-199만원(82.3%), 기혼, 이혼, 사별(78.0%), 종교 없음(79.4%), 불행한 편(79.5%), 재정적으로 안정적임(75.8%), 노후 준비되지 않음(75.1%) 등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음.

응답자구분	가계소득 (만원)	남자	여자	연령	종교	계층
전체	17,207	9.1	14.8	18.1	100.0	100.0
성별						
남자	(497)	9.7	78.4	18.9	100.0	100.0
여자	(910)	8.6	76.1	18.3	100.0	100.0
연령						
19세~29세	(178)	9.8	69.7	24.7	100.0	100.0
30세~39세	(196)	10.3	75.9	18.9	100.0	100.0
40세~49세	(218)	13.3	70.8	18.1	100.0	100.0
50세~59세	(198)	6.1	79.8	14.1	100.0	100.0
60세 이상	(218)	6.4	80.7	12.8	100.0	100.0
지역						
중대도시	(200)	4.0	88.0	10.0	100.0	100.0
중대도시	(377)	6.4	81.2	12.9	100.0	100.0
중대도시	(428)	15.8	85.8	22.9	100.0	100.0
중대도시	(4)	25.0	79.0	0.0	100.0	100.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4)	5.8	74.1	20.4	100.0	100.0
100~199만원	(124)	4.8	82.0	12.9	100.0	100.0
200~299만원	(162)	11.1	78.3	15.6	100.0	100.0
300~399만원	(224)	6.7	79.4	17.9	100.0	100.0
400~499만원	(188)	9.1	78.9	14.0	100.0	100.0
500만원 이상	(236)	13.2	70.2	18.6	100.0	100.0
중대도시	(22)	9.1	84.9	28.4	100.0	100.0
가구소득						
대도시	(462)	8.9	80.3	12.8	100.0	100.0
중대도시	(371)	14.0	85.2	20.8	100.0	100.0
중대도시	(174)	4.8	80.9	14.9	100.0	100.0
계층						
기혼, 이혼, 사별	(240)	11.7	64.6	23.8	100.0	100.0
기혼, 이혼, 사별	(762)	8.4	78.0	18.6	100.0	100.0
기혼, 이혼, 사별	(9)	0.0	80.0	20.0	100.0	100.0
종교						
종교 있음	(481)	12.7	70.8	17.0	100.0	100.0
종교 없음	(515)	5.8	79.4	14.6	100.0	100.0
종교 없음	(11)	9.1	84.9	28.4	100.0	100.0
행복						
행복한 편	(200)	5.5	79.5	15.0	100.0	100.0
행복한 편	(807)	10.0	79.8	18.4	100.0	100.0
재정적						
안정적임	(528)	9.1	79.8	18.2	100.0	100.0
안정적임	(479)	8.2	78.7	17.1	100.0	100.0
노후						
준비 됨	(478)	10.1	74.4	15.4	100.0	100.0
준비 됨	(554)	8.2	79.1	18.7	100.0	100.0
진보						
진보	(247)	16.6	66.4	17.0	100.0	100.0
진보	(486)	5.8	77.5	17.0	100.0	100.0
진보	(294)	8.9	77.6	15.9	100.0	100.0
계통						
상	(54)	17.8	81.8	20.8	100.0	100.0
중	(589)	11.3	72.6	16.1	100.0	100.0
하	(588)	5.2	79.1	15.7	100.0	100.0

5. 유산 기부 의향과의 관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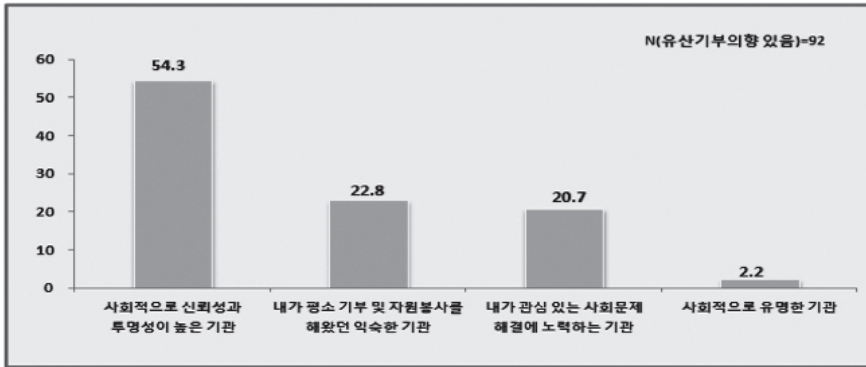
- ▶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유산기부 의향에 관계를 갖는 요인 중에서 사회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 7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점(71.7%)도 그 다음으로 높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 유산을 상속할 가족이 없는 것(44.6%)과 종교적 신념(43.5%)이 그 뒤를 이음. 유산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기대(19.6%)는 상대적으로 가장 미약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유산기부 의향과의 관계 요인]

6.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처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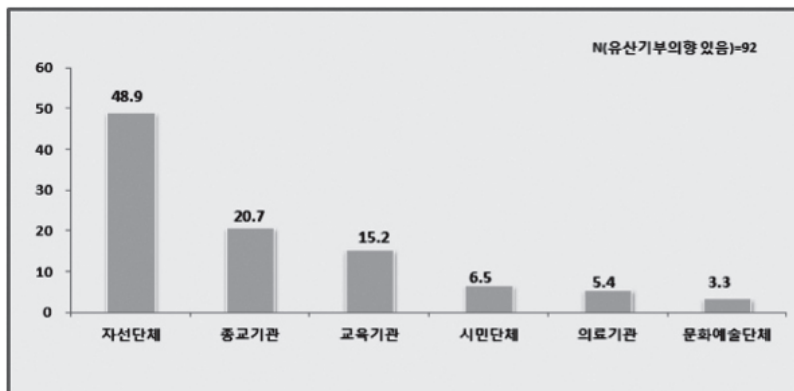
- ▶ 유산기부의향이 있을 경우, 유산을 기부하고 싶은 대상의 속성으로는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기관이 54.3%로 가장 높았고, '내가 평소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해왔던 익숙한 기관(22.8%)', '내가 관심을 두는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기관(20.7%)', '사회적으로 유명한 기관(2.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신뢰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
- ▶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기관'에 유산기부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런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내가 평소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해왔던 익숙한 기관'에 유산기부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상대적으로 그런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임.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처 속성]

7. 유산 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처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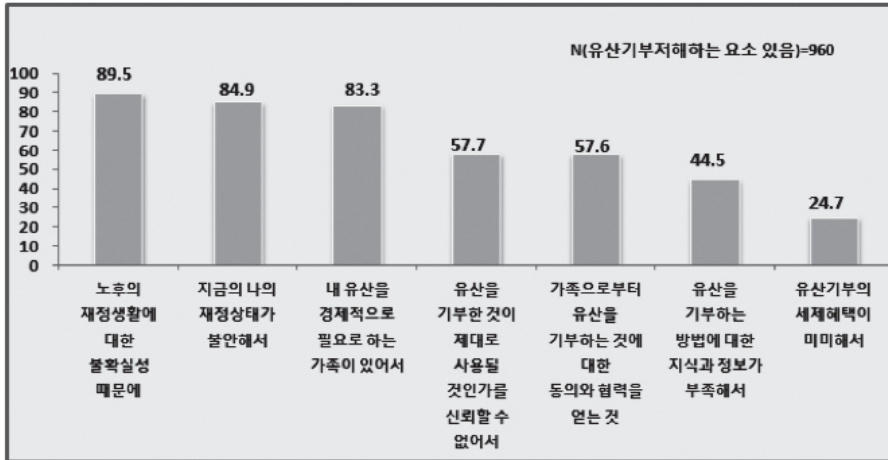
- ▶ 유산기부 의향이 있을 경우,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대상 기관의 형태로는 자선단체가 48.9%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기관(20.7%), 교육기관(15.2%), 시민단체(6.5%), 의료기관(5.4%), 문화예술단체(3.3%) 순으로 그 뒤를 이음. 자선단체가 가장 높게 선호됨.
- ▶ '자선단체'에 유산기부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그런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자(52.1%), 19-29세(52.9%), 미혼(53.6%), 종교 없음(66.7%), 재정적으로 안정적임(50.0%), 중산층 계층(51.5%) 등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선택이 높음.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처 형태]

8. 유산 기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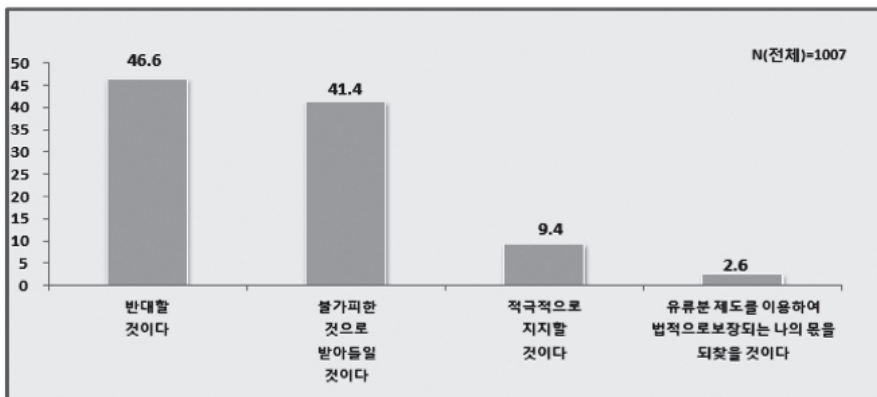
- 유산 기부 고려 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해 ‘노후의 재정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첫 번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9.5%), 현재 본인의 불안정한 재정상태(84.9%), 경제적으로 유산이 필요한 가족의 존재(83.3%)가 그 뒤를 이음.
- 이러한 사실은 유산기부 결정은 기부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불안정성과 관련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임.



[유산기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9. 가족의 유산 기부 결정 시 대응방식

- 마지막으로 가족이 유산기부 결정을 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47%(일반 국민 10명 중 약 5명)은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유류분 제도를 통해 즉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체 응답자의 9.4%(1007명 중 95명)만이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시 대응방식]

10-1. 유산기부 결정요인 추정모형 – 유산기부의향

-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산기부의향 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문대 재학이상의 학력(+), 중소도시동부(+), 기독교(+), 천주교(+), 나눔교육 등의 나눔 간접경험(+), 자선적기부금액(+), 사회자본(+)¹⁾이 유산기부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변수	coef.	p> Z	구분	변수	coef.	p> Z		
인구 사회 학적 변수	연령	.0021682	0.907	기부주체 잠재요인	나눔경험_간접	.2964311	0.043*		
	성별	-.0324318	0.915		나눔경험_직접	-.1401402	0.509		
	결혼여부(미혼=0 기혼=1)		-.6397031		0.155	기부금사용 개방성 (지역사회~국제사회)	.0412656	0.759	
	교육 (ref. 중졸이하)	고졸	.2076092		0.717		종교성 (월가구소득대비월현금)	.4370312	0.130
	거주지규모 (ref. 중소도시읍 면)	전문 대재 이상	1.165233	0.068*	기부주체 실천경험 요인	자선적기부금액(log)		.1854735	0.003***
		중소도시동부	1.383052	0.003***		자선적자원봉사시간(log)	.0459697	0.625	
		대도시	.1140239	0.814		기타 요인	사회계층의식	.0546946	0.626
		가구원수		-.154782			0.302	행복감	.144137
	재정상태	가구월소득(log)	-.0502029	0.878	재정안정도		-.0383659	0.674	
		금융자산(log)	-.0671828	0.124	노후준비정도		-.0483199	0.548	
		부동산자산(log)	.0098461	0.774	이념성향(보수-진보)		.0723514	0.358	
		부채여부	-.4143219	0.228	사회자본 (신뢰, 호혜성, 규범)		.110255	0.011**	
	종교 (ref. 무교)	기독교	.8298286	0.028**	cons		-5.935275	0.023	
		천주교	.8877283	0.068*					
		불교	.2540125	0.541					
		기타	1.559817	0.113					

10-2. 유산기부 결정요인 추정모형 – 유산기부희망비율

-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산기부희망비율의 결정요인을 Tobit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 동부(+), 금융자산(+), 기독교(+), 종교성(+), 자선기부금액(+), 사회자본(+)¹⁾이 유산기부희망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인구 사회 학적 변수	구분	변수	coef.	p>t	ME	구분	변수	coef.	p>t	ME
	기부주체 잠재요인	연령	-0.0705026	0.895		기부주체 잠재요인	나눔경험_간접	6.579841	0.128	
		성별	2.068926	0.814			나눔경험_직접	-7.033832	0.271	
		결혼여부(미혼=0 기준=1)	-17.95824	0.182			기부금사용 개방성 (지역사회-국제사회)	3.484109	0.381	
		교육 (ref. 중졸이하)	고졸	1.907688	0.904		종교성 (월가구소득대비 월현금)	15.61402	0.034**	1.73
			전문 대재 이상	27.39841	0.135	기부주체 실천경험 요인		자선적기부금액(log)	4.504624	0.017**
		거주지규모 (ref. 중소도시 읍면)	중소도시동부	31.49226	0.017**		2.08	자선적자원봉사시간(log)	.7900319	0.777
			대도시	.9073496	0.946	기타 요인	사회계층의식	.2543639	0.939	
		가구원수	-5.892472	0.183	행복감		4.277375	0.136		
		재정상태	가구월소득(log)	4.660821	0.637		재정안정도	.3496657	0.895	
			금융자산(log)	-2.877675	0.030**		0.38	노후준비정도	-1.582211	0.508
	부동산자산(log)		.8219256	0.428	이념성향(보수-진보)		1.177552	0.597		
부채여부	-11.00665	0.271	종교 (ref. 무교)	사회자본 (신뢰,호혜성,규범)	4.040025		0.002***	0.45		
종교 (ref. 무교)	기독교	25.1666		0.022**	1.66	cons	-233.546	0.003		
	천주교	20.3154		0.171						
	불교	7.489262	0.525							
기타	52.39054	0.122								

요약 및 결론

첫째, 경제적 환경의 불안정성이 유산기부에 대한 의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유산을 상속 받게 될 경우의 유산기부를 향한 행동상의 차이(3.5%P 정도의 차이)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셋째, 가족의 유산기부에 대한 부정적 정서(46.6%)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넷째,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이른 정년 등의 문제로 재정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유산기부는 긍정적으로 선호되기 어려운 기부방식인 것으로 평가됨.

다섯째, 유산기부에 대한 이와 같은 선호 **pattern**은 개인과 가족의 향후 경제적 상황이라는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된 사회적 조건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여섯째, 이런 상황에서도 종교, 현재의 자선적 나눔 행동, 사회자본 등은 유산기부에 대한 의향 및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외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유산기부의 중요 **channel**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현재의 나눔 행동 및 사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유산기부의 중요 **channel**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일곱째, 한국사회에서 유산기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종교, 현재의 자선적 나눔행동, 사회자본 축성 등의 채널에 기반한 노력이 일차적인 방편일 수 있음.



감사합니다

15

